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 이태원 소방서 골목 사례 연구 -

한 유 석**

Appropriation of Space and Community Making by Sexual Minorities*

- A Case Study on Itaewon Fire Station Street -

Yu Seok Han**

요약 : 본고는 초국가적·다문화적 공간 이태원에 다양한 정체성의 인구들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전유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들 중 특히 성소수자들이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에 주목한다. 이태원에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첫째, 미국문화를 필두로 한 외래문화 수용의 장으로서 이태원에 다양한 국적·계층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 영토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90년대 이후 성소수자 관련 업소들이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밀집하면서 이태원의 경제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증가로 인해 이태원에 젊은 세대의 성소수자들이 집적되었다는 점이다. 이태원 성소수자 공간의 특성은 ‘개방성’과 ‘드러내기’이다. 이태원에서 성소수자들은 공개적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소의 업주들도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게이업소와 트랜스젠더 업소를 표방한다. 이는 폐쇄적 특성을 지니는 종로 낙원동 일대의 남성 성소수자 공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주제어 : 이태원, 소방서 골목, 성소수자, 문화영토, 게이힐

ABSTRACT : This paper is a document that as many people with various identities come into Itaewon, which is transnational and multicultural space, in this process how they make their own space. It specifically pays attention to the process that sexual minorities make space and community for themselves at Itaewon fire station street. Among several reasons that sexual minorities' community could form in Itaewon, the first one is that foreigners with various nationality and classes formed a range of cultural territory in Itaewon, as a socio-cultural field mingling foreign cultures, especially American culture. Secondly, fire station street in Itaewon started to have large concentration of sexual minority-related business in 1990s, and regional economic structure of Itaewon has changed since then. Lastly, sexual minorities in younger generation gathered around

* 이 연구는 서울역사박물관의 <2010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의 일환으로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수행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여 추가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본문에서 인용된 그림(분포도)과 사진은 연구자가 서울역사박물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당시 제작된 것으로 형식상 2차 자료이지만,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자료임을 밝혀 둔다. 더불어 이 논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날카로운 비평과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Ph. D. Candidat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hans169@naver.com, Tel: 010-6850-7582

Itaewon because of the increase of on-line communities.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minorities' space in Itaewon is openness and showing. Sexual minorities feel free to have various activities, and owners of bars for gays or trans-genders publicly operate their business. And these are distinctively unique attributes of Itaewon, which is different from male sexual minorities' space in Nakwon-dong in Jongno-gu which has its own exclusive attribute.

Key Words : Itaewon, fire station street, sexual minorities, cultural territory, Gay-Hill

I. 들어가며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현대 도시인들은 공동체성보다는 개개인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적 기호도 일종의 취향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성소수자¹⁾들의 사회적 등장으로 연결되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고 일부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역으로 진출을 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노력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학 사상이 500년 동안 휩쓸었으며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 이러한 유학과 기독교라는 성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견지한 사상들이 지배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음지에서 활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고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시도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구분이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출현 이후, 자신들의 성적 권리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노력과 자신들의 공간 만들기(Tuan, 2001: 34)는 한국 사회의 성 관념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성(sexuality)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심을 초래하였는데 사회학, 생물학, 심리학, 의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에서, 지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이들의 특정 공간에 대해 주목하거나(Weightman, 1980), 게이 커뮤니티의 영역을 지도화 하고 이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Castells, 1983), 레즈비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공간에서 놀이라는 실천을 통해 어떻게 욕망의 주체로 변모하는지(Munt, 1998) 등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

1) 성소수자는 넓은 의미에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인터섹슈얼(Intersexual,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모호한 사람), 퀘스터너(Questioner, 성 정체성을 구별하지 않은 사람)를 통칭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지역인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게이와 트랜스젠더에 초점을 맞추되, 이들의 공간에 레즈비언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더해 설명하고자 한다.

소수자들의 공간이 일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게이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이서진, 2006)와 특정 공간에서의 레즈비언 놀이문화(김희연, 2004)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트랜스젠더들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성소수자 공간에 대한 연구는 의미적이다. 게이와 트랜스젠더들이 섞이며 형성된 공간이며, 레즈비언들이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²⁾

현재 이태원은 도시재개발 정책(도개비시장 일대에서 순천향 병원까지 이르는 언덕에 형성된 판자촌)과 도시재정비 정책(이태원 상가 일대)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재도시화(김용창 외, 2010: 88~89)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이태원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은 한국 내 다양한 외래 문화의 창구로서 다양한 문화영토³⁾가 형성되어 있기에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 상황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과 심층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이태원 내 여러 공간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형성된 성소수자들의 문화영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초국가적·다

문화적 공간(Faist, 1990: 40) 이태원에 다양한 정체성의 인구들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전유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⁴⁾으로서, 특히 성소수자들이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성 관념의 변화가 어느 지점까지 도달해 있으며, 성소수자들이 만든 공간과 커뮤니티가 기존 성 관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⁵⁾

2.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

주요 조사지역은 바(Bar), 클럽 등이 밀집해 있는 소위 이태원 소방서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이다.⁶⁾ 이 일대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와 클럽 외에도 게이바, 게이클럽, 트랜스젠더바, 트랜스젠더클럽, 트랜스젠더 가라오케 등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소수자들이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즐비하다. 연구자는 밤부터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이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번의 야간조사 및 밤샘조사를 수행했다.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성소수자와 이태원 지역에 관한 문헌 검토, 신문기사와

2) 종로구 낙원동은 게이들만의, 홍대와 신촌 일대는 레즈비언들만의 공간으로 특화되어 있다.

3) '문화영토'는 아직 학술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다만 일부 학술서와 언론에서 'cultural territory'라는 용어를 민족국가 내 소수 민족이나 다인종 사회의 소수인종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을 확장시켜 특정인들(소비계층, 종족, 인종, 성소수자 등)이 모여 형성된 공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4) 이태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다양한 종족집단, 계층집단,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각기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도영(2011)과 한유석(2010)의 연구를 참조

5) Henri Lefebvre(양영란(역), 2011)에 의하면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71쪽)이며, 이러한 "사회적 공간은 번식의 사회적 관계, 즉 가족이라는 특별한 조직과 더불어 성별, 나이에 따른 생물학적·생리적 관계와 생산관계, 즉 노동의 분업과 그 조직, 다시 말해서 위계질서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며 각각의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할애한다."(78쪽) 더불어 "계급투쟁은 공간 생산에 개입한다. (중략) 계급투쟁의 형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다양해졌다. 물론 소수 집단의 정치적 행위도 계급투쟁에 해당된다."(110쪽)라고 이야기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간인 이태원 성소수자들의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며, 이러한 공간의 생성은 일종의 성소수자라는 소수 집단의 사회문화적·정치적 행위로서 기존 생물학적·생리적 생산관계에 반하는 공간의 생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이태원에 다양한 유형의 클럽과 바, 펍, 술집들이 들어 선 역사에 대해서는 박성태·정성규(1993)와 최종일(2003)의 연구를 참조



〈그림 1〉 조사 대상지인 이태원 내 성소수자 업소(게이, 트랜스젠더) 분포 현황(한유석, 2010: 426)

인터넷 웹사이트 등 매체에 나타나는 자료 조사, 현지에서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낮과 밤이 완전히 대비되는 이태원, 그 중에서도 특히 밤의 모습이 더 낯익은 이태원 소방서 골목 내 성소수자들의 공간을 조사하면서 한국 사회 내 성적 마이너리티로 여겨지는 성소수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들과 공식 인터뷰(formal interview)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로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interview)를 통해 12~13명의 성소수자(트랜스젠더, 게이⁷⁾)와 접촉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연구 주제의 특성상 공식 인터뷰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중 일부는 공식 인터뷰를 통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성소수자 공간에 대해 기록하고 공간 속 활

동주체로서의 성소수자들을 참여관찰 하였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관련한 인터뷰도 수행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록 작은 지역 단위에서의 인식 변화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한국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며 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⁸⁾

이처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성소수자라는 은밀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례를 제시하고 통계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통해 이태원 성소수자들과 그들의 공간에 대한 사

7) '게이'는 남성동성애자와 여성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나,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성동성애자를 의미한다. 화용론적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게이'라는 용어를 남성동성애자에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8) 정보제공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이 논문에서 직접 인용된 것도 있고 간접적인 분석대상의 자료로서 본문 서술 안에 정리된 것도 있다. 정보제공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성만 표기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성이 아닌 이름(first name)만 기입하였다. 영업장소와 관련된 경우 본인의 허락이 있었던 경우에만 업종과 업소명을 밝혔다.

회문화적 맥락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는 통계와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II. 이태원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 과정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 즉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아왔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들게 된 원인이 된다(이서진, 2007: 33).

이 장에서는 왜 이태원에 성소수자들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이 공간을 전유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성소수자 공간 형성에 따라 근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1. 다양한 문화영토 형성과 성소수자들의 공간 형성 과정

한국전쟁 이후 미8군의 용산 주둔은 이태원이 미국문화의 창구가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한국 내 영토에서 미군의 힘(외래 세력)이 작용하는 영토가 된 것은 또 다른 외래문화의 유입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각종 국제회의, 아시안게임, 서울올

림픽을 거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태원은 초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이태원은 짝퉁 이미지, 짝퉁 단속 강화, 동대문 쇼핑 상권의 발달로 인한 상대적 쇠퇴로 인해 쇠락기로 접어들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미8군 이전 발표와 함께 지속적 감군 및 타기지로의 미군 이전 등의 여파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권의 쇠퇴는 지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 공간에 새로운 인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산업연수제를 통해 제3세계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이태원은 또 다른 외래문화의 전시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공간 이태원의 면모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이태원이라는 권역 안에 다양한 문화영토들이 생성되었다. 다양한 문화영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태원 권역 전체로 보면 '섞임'이고,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경계만들기와 '분화'가 나타나는 양가성의 공간으로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태원의 문화영토를 세분화하면 이태원 쇼핑거리, 아프리카거리, 이슬람거리, 세계음식거리⁹⁾, 후커힐(Hooker Hill), 게이힐(Gay Hill)이 있다.¹⁰⁾

언어, 시선, 이슬람성원, 지대 하락과 값싼 임대료 등은 다양한 국적·계층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 영토를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이태원이 낮은 진입장벽과 배태성으로 인한 초국가적 장소성을 지닌 공간이 된 것이다(고민경, 2009). 이처럼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간으로서 이태원은 성소수자들의 공간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9)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는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에 세계음식점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내 가장 이국적인 지역으로서 외국인들의 출입과 수요가 많았고, 유학이나 해외근무를 통해 외국생활을 경험한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먹던 그 맛을 찾는 한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태원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도영(2007)의 연구를 참조.

10) 물론 각각의 문화영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기에 하나의 문화영토가 형성될 때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요인이 시기를 달리해 작용하여 각각의 문화영토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소수자 공간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성소수자들의 공간이 형성된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70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의 <휴지통>란에는 “여자로 변장, 창녀 노릇을 해 온 김모군(22) 등 3명을 구속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미군 하사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다가 붙잡힌 이들은 5개월이나 감쪽같이 여자행세를 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이 여장을 한 이유는 그저 돈을 훔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크로스 드레서(Cross Dresser)나 트랜스젠더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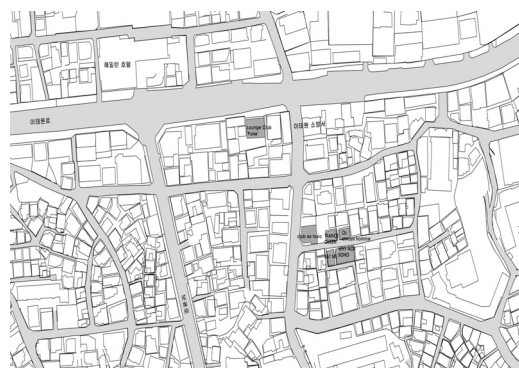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동성애자들은 정체성으로서의 게이 혹은 생활양식으로서의 게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김은실, 2004: 54). 이태원에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출입하는 업소는 1980년대부터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단속에 의해 몇 개월만에 문을 닫고 다시 열기를 반복하였다고 한다(한유석, 2010: 424). 그럼에도 이들 업소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전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주말을 이용해 이태원에 올라와 자신들의 끼를 맘껏 발산하였고 그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태원에는 일찍부터 성소수자들이 존재하였지만, 본격적인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는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종로 일대와 이태원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의 공간이 존재하긴 하였지만, 1990년대 게이바가 현재의 게이힐(Gay Hill) 안에 입점하면서 성소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태원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고정된 질서를 거부하는 속성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이태원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모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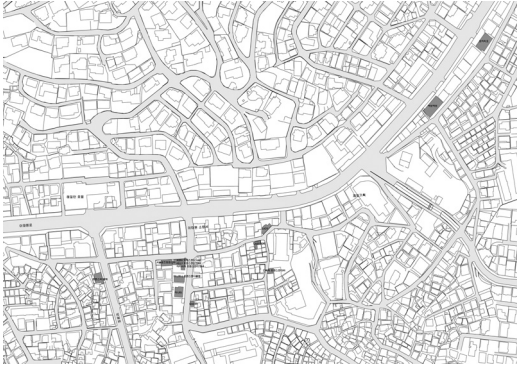
태원 소방서 골목 일부 공간을 게이힐이라 불렀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해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태원에 모여 들었다.

초기엔 해밀턴 호텔 뒷골목을 ‘아랫동네’, 지금의 게이힐을 ‘윗동네’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랫동네 클럽인 ‘지퍼(Zipper)’가 주로 가요를 틀었다면, 윗동네 클럽인 ‘트랜스(Trance)’에서는 팝을 틀었다. 그렇게 윗동네는 서양인을 만나려는 게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고, 아랫동네는 한국인끼리 노는 동네였다. 이후 게이힐에 ‘Why not?’, ‘Always Homme’, ‘Soho’ 등이 들어섰다. 이후 ‘Pulse’가 이태원로 변에, ‘Eat Me’, ‘Queen’, ‘Oz’, ‘Club ex toxic’이 현재 게이힐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들어서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트랜스젠더클럽은 제일기획 너머 이태원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여보여보’와 ‘보카치오’가 그것인데 현재도 그곳에 위치해 있다. 이후 트랜스젠더바와 트랜스젠더클럽이 이태원 소방서 골목 안으로 진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2〉 게이 업소 분포 현황
(한유석, 2010: 424)



〈그림 3〉 트랜스젠더 업소 분포 현황
(한유석, 2010: 425)

지금까지 살펴본 이태원 성소수자 공간 형성 과정에서 그 공간의 형성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이태원은 미국문화를 필두로 한 외래문화 수용의 장으로서 역사적 층위를 달리하며 이태원에 다양한 국적·계층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영토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이태원 한국인들의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 및 관용의 정도가 타 지역 거주민들에 비해 그 폭이 넓어졌으며, 이는 이태원에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이태원 집적은 이태원의 개방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없었던 성소수자들에게 이태원은 최적의 장소였다. 이곳은 외래문화의 창구로서 한국 사회의 도덕률과는 다른 도덕률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곳에 비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이질적 문화 수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에 대한 간섭도 덜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국 내 미국문화의 공간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화 과정 속 자본, 인구, 문화의 이동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넘쳐 나는 공간으로 변모하기까지 이태원은 항상 변곡점 위에 서 있었으며, 그 변곡점들의 연속으로 구성되었다.¹¹⁾ 미군과 그 군속, 영미 출신과 기타 백인,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아프리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륙 출신의 외국인들이 시대적 지층을 형성하면서 이태원에 모여들었고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만들면서 이태원은 다양한 피부색과 옷차림으로 채색된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

둘째, 90년대 이후 게이바와 트랜스젠더바 등 성소수자 관련 업소들이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밀집하면서 이태원의 경제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의 생성이 경제적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성소수자 관련 업소들의 이태원 운집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이태원에 더욱 몰려들었고 그 여파로 관련 상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성소수자 관련 상권과 성소수자들의 이태원 운집 간 생산/재생산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이태원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에 와 보니까 게이바도 많이 있고 사우나, 찜질방도 이태원에 있어요. 근데 이 주위에서도 게이바 있다고 해서, 트랜스젠더바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같이 서로 만나면 인사도 하고. 게이들이 와서 놀고 끼 떨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금, 토는 게이나 트랜스젠더 아니면 장사할

11) 전지구적 자본주의로 인해 자본, 인구, 문화의 이동 현상이 초래되었고, 이는 현대 도시가 '다민족적'이며 '다문화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Sennett, 1996: 164).

수 없는데 뭐. 식당 같은 데나 어디나. 게이도 돈 많
이 쓰고, 트랜스젠더는 특히 술 많이 먹고, 식사 많
이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게이나 트랜스
젠더를. 오히려 일반사람들보다 도움이 많이 되죠.

- 김○○(남, 51세, 트랜스젠더바 운영,
트랜스젠더 가라오케 지배인)-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증가¹²⁾로 인해
이태원에 젊은 세대의 성소수자들이 집적되었다는
점이다. 온라인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
은 이태원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나이 든 세대들과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는데, 이는
성소수자 세대간 전유 공간의 분리를 초래하였
다.¹³⁾ 이는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예전)에는 게이들이 갈만한 데가 없었지.
그러니까 밤이면은 막말로 다들 기어 나올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도 잘 돼있지. 그냥 인
터넷으로 사람찾기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만나가
지고 쉽게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 (중략) 한국 게이
들은 인터넷이 아마 빠 그런 거보다 수백배 수천배
많을 걸요? 내가 어림잡아 보기는. 사이트도 많고,
나도 인터넷 같은 거는 원세대로 잘 모르는데, 가끔
씩 들어가 보면 뭐, (이반 시티?) 어, 이반시티나 이
런 데 들어가 보면 '상대방 구합니다'라는 거. 심지

어 뭐 어떤 어떤 조건의 사람을 구하다는 광고도 많
고. 심지어 그 안에서 돈 주고 사고 받고, 하는 것도
형성되는가 보더라. (중략) 아무래도 좀 지금(아마
도 예전을 착각해 말한 듯) 친구들을 보면은 아날
로그적인 관계고, 지금 친구들은 즉각적이고, 굉장
히 뭐랄까 실질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인터넷을 많
이 파고들지.

- 서○○(남, 51세, 이탈리아
레스토랑 · 게이클럽 · 게이바 운영) -

서○○ 씨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이반시
티'(www.ivancity.com)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등장은 성소수자들의 자신들만의 공간에 대한 접
근 방식을 바꿔 놓았다. 이는 종로가 랜드마크격
인 극장을 중심으로 게이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
과는 다른 양상이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익명성의 보장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
지면서 이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대규모 정모
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진행¹⁴⁾ 된 것과 관련된다.

2. 이태원 주민들의 인식 변화

이태원 소방서 골목 대로변과 게이홀을 성소수
자들이 특정 요일(금요일, 토요일), 특정 시간대
(밤 9시부터 새벽 6시)에 점령한 이후로 근린에

12)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1993년 '초동회'라는 인권단체가 결성된 이후부터다. '초동회'는 1994년 남성동성애자들의 모임인 '친구사이'와 여성동성애자들의 모임인 '끼리끼리'로 해체되었고, 1995년에는 대학별로 동성애자들의 인권 단체들이 생겨났다(이서진, 2006: 41). 조미나(2001: 34)는 동성애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증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천리안의 queernet(1995년 11월 개설), 나우누리의 rainbow(1996년 1월), 하이텔의 dosamo(1996년 2월) 등이 초기의 PC통신 모임들이다. (중략) 통신상의 동성애자 모임들은 1998년 당시 5백~7백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며 동성애자 공동체의 성장과 패권에 영향을 미쳤다. 한때 정기 모임을 가지면 1천 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13) 조성배(2003: 69)는 "게이 문학" 웹마스터에 있는 다음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태원이 게이들의 새로운 소비 공간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태원을 만든 사람은 통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모든 통신의 정모를 여기서 했어요. 종로는 비싸고, 아저씨들 눈빛이 음흉하고 찻집해서 종로를 싫어하던 젊은애들이나 깨끗하고 산뜻한 길 원했던 애들이 이태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못 가다가 정모 몇 번하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서진(2006: 46)도 "1996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급증으로 인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익명성의 보장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이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대규모 정모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14) 이서진(2007: 31)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장 이전의 패턴이 '나가서 만나는 것'이었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를 '만나서 나가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설명한다. 종로구 낙원동 일대에 형성된 게이 커뮤니티에 관해서는 이서진의 연구(2006, 2007)를 참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 관념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성소수자들의 출현에 대해 처음에는 ‘더럽고’, ‘불쾌하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던 데 반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횡수가 빈번해지면서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 없이 그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주민들도 많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주민들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Q: 게이나 트랜스젠더가 식사 배달 주문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A: 개네들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한 거 한 4년 됐나? 그 전에는 게이들이 별로 없었어. 저 ‘여보여보’라는 저 밑에 클럽에, 거기에 클럽이 하나 정도 있었지,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 그니까 게이 보기가 참 하늘에 별 따기였는데 요새 아침에는 밖에 나가 있으면은 게이들이, 거의 다 게이들이 지나 다녀.

Q: 여자 같은 사람들이요?

A: 여자지, 거의 여자지 뭐. 그런 거지 뭐.

Q: 트랜스젠더?

A: 그렇지.

- 안○○(여, 67세, 식당 운영) -

게이힐 위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안○○씨는 게이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이 동네에 성소수자들이 활보하고 다닌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한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집적되기 시작한 시기가 게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안○○씨는 게이들이 활보하던 게이힐을 그저 유흥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면서 여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라 생각되는 이들을 게이로 인식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수년 전부터 성소수자들이 식당의 고객이 된 덕택에 오랜 기간 그들과 이웃처럼 지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A: 여기 뭐 진짜 성전환자들 많고, 남자에하고 많이 와요. 그니까 남자가 여자, 주사 맞고 가슴도 이따만 하고 이런 애들 많아요. 목소리만은 못 바꾸데. 그건 목젓인데, 그거보고 아는 거지. 많아요. 엄청 많아.

Q: 그런 사람 보면 느낌이 어때요?

A: 근데 그것도 하도 많이 보니까, 하도 많이 보고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탕하면 무식한 소리 듣겠더라고.

Q: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A: 나도 노인네니까, 처음에는 아이 저 새끼 저거, 기분 나쁘다 하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뭐, 어머어머 오빠 어찌고 저찌고 그래도 뭐 별 다르게, 그래요.

Q: 성소수자들이 많은 공간이라 여기 사는 분들이 적응하는 것 같네요.

A: 뭐 별로 그런 거. 그니까 그 더럽쥌, 그니까 저거 남잔데, 남잔데 이빠요 또, 가슴도 이따만하고, 그리고서 목소리는 굵직하고 그런데 남자에랑 온다고, 남자가 근데 거의 다 한국 사람은 아니더라고. 다 외국인들, 일본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아! 자식 저거 재주도 좋다’ 그러면서

15)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바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남, 51세)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태원에 트랜스젠더 관련 업소는 불과 4개 정도 밖에 없었다고 한다.

별로 그렇게 거부반응이 안 나더라고.
- 이○○(남, 54세, 모자가게 운영) -

성소수자에 대해 ‘더럽다’, ‘남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자주 접하다 보니 어느 순간 큰 거부반응이 없어졌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그들에 대해 닦하는 것이 ‘무식한’ 것을 티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여전히 내면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적어도 이태원에서는 그것을 드러내 놓고 비난하기 힘든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이태원 내에서도 여전히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다. 이는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여기 게이바가 많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A: 아, 그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웃음) 이렇게 많이 생긴 거는 한 5년? 6~7년? 15년도 더 된 오래된 바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점점 많이 생긴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도 그런 바가 많이 생겨서 이태원에 오기 싫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놀러오면, 그 사람들이 끌고 가요, 그리고 하룻밤에 술값이 100만원이 넘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술 취해서 카드 긁잖아요? 그 날은 몰라요, 그 다음날에 확인해보면 깜짝 놀라는데 부끄러워서 항의도 못해요, 어떨 때 보면 사기 같아요.

Q: 이슬람성원을 가려면 트랜스젠더바나 그 거리를 지나야하는데...?

A: 네, 그렇죠, 나는 일반 무슬림인데 가끔 수염 길고 한 무슬림들은 그 사람들 지나갈 때마

다 욕을 해요, 예배하러 가는데 야한 옷 입고 속 다 보이게 하고 있으니까.
- 칸 ○○(남, 파키스탄, 44세, 비즈니스맨) -

칸 ○○ 씨는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로서 한국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이다. 이태원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해외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에게 성소수자들은 ‘부정한’, ‘깨끗치 않은’ 존재다. 이태원에서 한남동 이슬람성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태원 소방서 골목을 지나가야 한다. 정결한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종교적 의례에 참여하려는 그에게 야한 옷을 입고 호객행위를 하는 트랜스젠더들의 존재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이처럼 종교적인 이유(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성소수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여전히 많은 일반 주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참여관찰기¹⁶⁾에서도 알 수 있다.

6월 25일은 유난히도 후덥지근한 날이었다. K선생님과 보광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동아냉면에서 냉면을 먹고 담배를 피우니 또 다시 목이 말랐다. 시냇물을 찾아 헤맬 순 없어서, 대신 팔빙수를 찾아 헤매었다. 보광초등학교 앞에 3,000원짜리 팔빙수를 파는 분식집이 있었다. 하나를 시켜서 둘이 먹고 있던 중, K선생님이 ‘한 여인’(트랜스젠더바 간짜이 마담)을 발견했다. 굵은 목소리 톤의 그 여인은 키도 제법 컸다. 우린 서로 아는 체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 여인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고 우린 다시 팔빙수를 입에 넣고 있었다.

분식집 앞에 작은 탁자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튀김과 국물 등을 시켜서 안주 삼아 맥주를 먹고 있었다. ‘한 여인’과의 재회 이후, 이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되었다. 나를 바라보는

16) 본문에서 인용된 참여관찰기는 조사 당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그 아저씨의 시선에는 신기함과 더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고 은연중에 그만 봤으면 하는 눈길을 건넸지만 이 대답한 아저씨는 그냥 대 놓고 우릴 쳐다보고 있었다. 이유는 그 여인이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다. 반갑게 그 여인과 인사한 우리는 그들에게 게이로 인식된 것 같다.

그 아저씨의 시선은 참으로 뜨거웠다. 이반이 아닌 일반인 우리가 느끼기에 불쾌한 저 시선이, 게이 나 트랜스젠더들에겐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전체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이태원 주민들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성소수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편견을 가지고 대하던 이태원 주민들이 현재는 (물론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배제한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성소수자들을 겪으면서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태원 주민들에게 성소수자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자주 보는’ 사람들일 뿐이다.

Ⅲ. 이태원 성소수자 공간의 유형별 특성

이태원의 성소수자 공간은 크게 게이들의 전유 공간과 트랜스젠더들의 전유 공간으로 나뉜다. 게이들의 전유 공간은 주로 펍과 클럽이, 트랜스젠더들의 전유 공간은 트랜스젠더 가라오케와 트랜스젠더바가 주를 이룬다. 이 장은 게이들과 트랜스젠더들의 공간에 대한 기록이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대한 기록이다.

트랜스젠더들의 공간은 ‘아나따’와 ‘간빠이’를 선정하였다. 트랜스젠더 가라오케와 트랜스젠더바를 선정해 각각의 특징과 이 공간을 찾는 소비

자 및 그들이 공간을 찾는 이유, 트랜스젠더의 남근 제거에 관한 일반의 오해에 대해 논하였다. 다음으로 게이들의 공간은 ‘Always Homme’와 ‘Eat Me’를 선정하였다. 현재 이태원에서 게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레즈비언과 양성애자들도 찾는 공간이지만 주로 게이들의 활동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Trance’와 ‘Why not?’은 주로 게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지만 위의 네 공간에 비해 가장 다양한 성 정체성의 소유자들이 섞여 함께 춤을 추며 어우러지는 클럽이다. 이들 각각의 공간은 때론 뒤섞이기도, 때론 경계 지으며 이태원 성소수자 공간을 이루고 있다.

1. 트랜스젠더 가라오케 ‘아나따’, ‘간빠이’

트랜스젠더 가라오케 ‘아나따’는 이태원 소방서 골목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은 트랜스젠더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7시 경이 되면 야한 옷차림의 섹시한 여성(?)들이 가게 앞에 나와 손님을 유혹하는 광경이 연출된다.

아나따는 이태원 게이힐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지하로 내려가면 가운데 무대가 있고, 무대 정면에 홀이 있다. 홀에는 둥근 원탁 형식의 테이블과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으며, 7~8명의 트랜스젠더가 손님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술을 권한다. 가벼운 스킨쉽이 오고 가고 맘에 드는 손님일 경우 진한 스킨쉽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방서 골목의 도로 변에는 아나따와 같은 트랜스젠더 가라오케가 즐비하며, 쇼가 중심이 되는 ‘여보여보’와 구별된다. 손님이 원할 경우 2차가 가능하며, 화대는 30만원 정도라고 한다. 마담은 40대 트랜스젠더인데 손님을 상대하지는 않는다. 손님을 상대하는 트랜스젠더는 20대이다.



〈사진 1〉 트랜스젠더 가라오케 ‘아나따’(한유석, 2010: 427)



〈사진 2〉 트랜스젠더바 ‘간빠이’(한유석, 2010: 428)

‘간빠이’는 트랜스젠더바와 트랜스젠더 가라오케의 중간 형태의 업소다. 게이힐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나따의 지배인인 김○○ 씨¹⁷⁾가 대표이다. 간빠이에서는 마담과 1~2명의 트랜스젠더들이 손님들을 대접한다. 간빠이 마담은 한국 트랜스젠더 1세대 격으로 일본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간빠이에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아나따의 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손님들을 간빠이로 안내하는 전략을 사용해 가게를 홍보해 왔으며, 현재는 고정 단골들도 꽤 늘었다고 한다.

두 업소의 손님들은 일반 남성이 대부분이다.

게이들은 이 공간에 오지 않는다. 게이들은 일반 남성을 좋아하거나 게이와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와 게이 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형성된다. 함께 있을 때에는 일반과 다른 성 정체성을 소유한 ‘이반’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연구자와 게이 또는 연구자와 트랜스젠더만 있는 경우 서로에 대한 비꼬기와 헐뜯기가 대화의 주요 내용이 된다. 게이는 트랜스젠더를 여자도, 남자도 아닌 이상한 존재라는 식으로, 트랜스젠더는 게이를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간에 긴장감이 형성되는 이유는 일반 남자에 대한 일종의 라이벌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 남성들이 이 공간을 찾는 이유에 대한 간빠이 마담의 증언은 의미심장하다. 간빠이 마담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호기심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이나 태국 혹은 서구권에서 트랜스젠더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다고 한다. 거침없는 성적 발언과 적극적인 성적 행동에 일반 가라오케나 룸싸롱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쾌감 때문에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태원 및 한국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중 상당수가 남근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제거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의 기호와도 연관된다고 한다. 여자와 똑같은 몸매와 성기를 지닌 트랜스젠더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를 찾는 남성들(한 번 빠져든 남성들)은 더 색다른 자극과 색다른 것을 찾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사람들은 여

17) 김○○ 씨는 현재 ‘아나따’ 지배인을 그만 두고,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 가라오케인 ‘보라보라’에서 지배인 일을 하고 있다. 여전히 ‘간빠이’는 운영 중이다.

자와 똑같은 트랜스젠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처럼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들을 찾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남근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트랜스젠더의 '상품가치'와도 연관된다. 이는 다음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Q: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술을 하신 분들인가요?

A: 트랜스젠더란 게 손님들도 이런 게 있어요, 전부다 수술하면 트랜스젠더 뭐 하러 오냐 일반 단란주점가지. 여기 오는 손님들은 색다른 사람들이예요, 새로운 문화 겪고 싶고, 다른 세계를 겪고 싶어서 온 손님들이지. (수술을) 거의 90프로 안하지. 수술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차이점 많아요, 성전환 안한 사람 한 백 명이라면 수술한 사람이 두, 세 명 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 단란주점하고 트랜스젠더 바가 다른 거죠, 그런 손님들이 오고.

Q: 수술 안 해도 예쁘시구나.

A: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스럽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길면 그게 통과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는 애들이 생 남자가 화장하고 가발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여성이란 말이지. 그래도 손님이 원해요, 그게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 게이라면 절대 안 돼요, 또, 트랜스젠더바 오는 손님들은 게이를 싫어해요, 게이들도 트랜스젠더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 김○○(남, 51세, 트랜스젠더바 운영, 트랜스젠더 가라오케 지배인) -

2. 게이바 'Always Homme', 'Eat Me'

게이바 'Always Homme'와 'Eat Me'는 게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

누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춤을 좋아하지 않거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게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Always Homme'는 게이힐 안 'Why not?'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주로 게이들이 찾지만 양성애자와 일반인 손님들도 많으며, 레즈비언들도 자주 눈에 띄는 곳이다. 게이들이 전유하는 공간이면서 다른 성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열린 공간이다. 직사각형 구조의 가게 내부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입구 오른쪽에 길게 바가 놓여 있으며, 왼쪽 편에는 테이블들이 놓여 있다. 옆 테이블과의 소통이 자유로운 구조이며 합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또는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Always Homme의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참여관찰기에 잘 드러난다.

게이힐 언덕 초입에 있는 'TRANCE'를 지나 'Always Homme' 앞에 도착한다. 낮익은 얼굴이 우릴 반긴다. 'Always Homme'와 건너편 'Why not?', 그리고 이탈리아 식당 'LA TAVOLA'의 대표인 '서○○' 사장님이다. '오랜만이야'라며 반겨준다. 안으로 들어간다. 가게 앞 간이 테라스에는 레즈비언 여자 1명과 사장님이 수다를 떨다가 우리가 들어오자 사장님이 안으로 들어오신다. 멤버 체인지를 통해 가게 안에 있던 한국인 종업원이 가게 밖으로 나간다. 레즈비언인데 가끔 게이바에 놀러 온다고 한다.

호가든 3병을 주문한다. 문○○ 영상감독님, 나, 사장님 이렇게 셋이서 맥주를 들이킨다.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사장님과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다.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 한국 사회의 성 인식에 관한 이야기 등을 주고받는다. 내가 특히 이 지역에 관심이 많고 글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하자, 도와주겠다고 연락하라 하신다. 감사하다. 한참 얘기가 오고가는데 뺨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고개를 돌린다. 우리 쪽을 주시한다. 그럴 거면 이

쪽으로 와서 같이 얘기에 동참하라고 권유하니 오케이하고 잔을 들고 온다.

젊은 청년은 우리 얘기가 재미있어서 듣고 있었다며, 자신은 바이섹슈얼이라고 소개한다. 28살의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이라고 한다. 덩치가 꽤 크다. 여성스러운 면도 살짝 느껴지는 청년이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꽤 흥미롭다. 처음에는 이성애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여자를 사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에게도 끌려서 남자 마사지사가 있는 안마방에 가서 동성연애를 경험한 이후 남자와의 성관계가 더 느낌이 좋았다. 일반 게이와 다른 점은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도 흥분이 된다는 점. 그러나 역시 남자가 더 끌리고 남자가 더 좋단다.



〈사진 3〉 게이힐에 위치한 게이바 'Always Homme'
(한유석, 2010: 432)



〈사진 4〉 게이힐에 위치한 레스토랑 겸 게이바 'EAT ME'(한유석, 2010: 432)

'Eat Me'는 게이힐 안 'Trance'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낮에 'Eat Me'를 간다면 레스토랑으로 착각할 것이다. 간판에는 'asian cuisine & lounge'라 표기되어 있고, 일반 레스토랑과 똑같은 내부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낮에는 하얀 요리사복을 입은 주방장들이 다양한 음식과 칵테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밤에는 다른 공간으로 변모한다. 밤에는 주로 게이들이 찾는 바로 변해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곳 역시 'Always Homme'와 마찬가지로 게이들의 비율이 높지만 일반인들과 여성들에게도 인기 있는 공간이다. 'Always Homme'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태원 내 성소수자 공간에서 '꽤 놀아 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이다.

'Always Homme'와 'Eat Me'는 게이바지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다. 이 공간 내 주류는 한국 사회 내 비주류라 할 수 있는 게이들이지만 그 안에서 비주류이자 한국 사회 내 주류인 일반인들까지 섞여 있는 일종의 혼종성이 발현되는 공간이다.

3. 춤을 통한 '끼' 발산의 공간 클럽 'Trance', 'Why not?'

클럽 'Trance'와 'Why not?'은 성소수자 특히, 게이(남성 성소수자)들이 춤을 추며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공간이다. 전술하였듯이 종로구 낙원동 일대가 아저씨 게이들의 집합지라면, 이태원은 젊은 게이들의 집합지이다. 고로 'Trance', 'Why not?', 'Pulse'와 같은 게이들을 위한 클럽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 클럽들은 이태원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여러 공간들 중 가장 다양한 성 정체성의 소유자들이 섞이는 공간이다. 게이 외에도 다른 성소수자인 레즈비언과 양

성애자, 성에 대해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과 외국인이 한 데 섞이는 혼종된 공간이다.

‘Trance’는 이태원 게이힐에 처음 입점한 업소다. 이곳은 이반뿐만 아니라 일반도 많이 찾는 곳이다. 세련된 맛은 없지만 싸 보이지도 않는 나름의 독특한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곳이다. 매주 금요일 새벽 2시에는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위한 공연이 열린다. 업소 대표와 종업원은 게이이고, 공연은 트랜스젠더가 한다고 표방하나, 실제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트랜스젠더인 척하는 게이이다. 공연 입장료는 1만원이며, 물랑루즈 스타일의 드레스와 공작깃털식 짧은 스커트, 금발 깃털형 장식머리, 흰색 스타킹을 신는 등 자극적인 차림의 한껏 치장한 공연자들이 직접 입장티켓을 팔고, 공연도 한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7~8평 정도)에 작은 무대가 있고, 무대 뒤편에는 DJ 박스가 있다. 작은 바와 간이 의자가 놓여 있고 벽 쪽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촘촘히 놓여 있다. 가운데 공간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공연을 즐기는 공간이다. 손님들은 여성이 더 많다. 대부분이 한국의 젊은이들이며, 여성들끼리 오거나 남자친구들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다. 공연은 립싱크에 자극적 율동을 곁들인 형태로 진행되며, 여러 공연자들이 돌아가면서 무대를 꾸민다. 공연 도중 모든 멘트는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꽤 서투른 공연자도 있었는데, 이 또한 이태원의 아마추어틱한 꾸밈없는 매력이라고 치장되는 경우가 많다.¹⁸⁾

‘Why not?’은 ‘Trance’의 건너편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문을 여는 ‘Why not?’은 이태원에서 게이바 ‘Always Homme’와 이



〈사진 5〉 게이힐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수자의 공간 ‘TRANCE’(한유석, 2010: 431)



〈사진 6〉 게이힐에 위치한 게이클럽 ‘Why not?’ (한유석, 2010: 304)

탈리아 식당 ‘LA TAVOLA’를 운영하고 있는 서○○ 씨의 소유다. 이 공간은 ‘Trance’보다 게이들이 더 많은 공간이다. 트랜스젠더는 이 공간에 거의 오지 않는다. 온전한 게이들과 일반인, 레즈비언의 공간¹⁹⁾이며, 외국인들도 많다. 강한 음악 비트에 실내 공기는 매우 탁한 편이다. 몽롱한 기운 속에서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다.

‘Why not?’과 ‘Trance’는 비슷한 콘셉트의 성소수자를 위한 클럽인 것처럼 보이지만, 손님 층에 있어서의 구별, 공연 여부, 주중 오픈 일수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게이힐 내에 함께 위치

18) ‘Trance’의 금요일 밤 공연에 대해서는 송도영의 참여관찰기를 재구성한 것이다(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162~163).

19) 레즈비언의 공간과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김희연(2004)의 연구를 참고

해 있으면서 일종의 차별화를 통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IV. 나오며

성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태원은 성에 대한 다양성과 개방성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장이다. 이태원에는 역사적 층위를 달리 하며 다양한 문화영토들이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이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자신들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더불어 성소수자 공간의 형성과 그들의 공간 전유로 인해 근린 주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더럽고’, ‘불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일정 정도 전환되었다. 이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이태원의 개방성과 포용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성소수자 관련 상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몰려들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태원에는 성소수자들이 전유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을 자신들이 전유하고 있다는 관념적인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존재는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들의 일상적 실천으로 재현된다. 이태원역을 나와 대로를 확보하다 보면 손을 잡고 걷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스킨쉽하는 게이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한 대낮부터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태원 상가를 누비는 넓은 어깨의 아름다운 여성들(트랜스젠더)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밤에는 서양인들이 트랜스젠더를 두고 ‘Lady Boy’라 놀리는 모습도 간혹 목격된다.

최근 이러한 이태원의 변화와 함께 이전에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민들과 성소수자들 사이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게 어떠할까?”라는 담론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 성소수자들의 공간을 양성화하고 관광화하자는 논의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익숙해진 이태원 주민들과 성소수자들 스스로가, 이전에 이태원의 치부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양지로 나오려 하는 움직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서상 성소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의 추이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이태원 소방서 골목에 위치한 게이힐 일대를 자신들의 공간으로 문화영토화 하였다. 이태원 소방서 골목 안쪽에 자신들만의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을 전유하면서 자신들의 색깔로 채색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전유를 위한 이들의 노력은(혹은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다양한 일상적 실천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질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해 이태원의 성소수자 공간 전유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이태원 성소수자들과 그들의 공간, 공간 전유 과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만으로는 전체적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적 방법론에 입각한 이태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민경, 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이태원을 중심으로

-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김용창 · 이성호 · 이후빈, 2010, “세운상가 일대의 업종별 실태와 상업적 유통망”, 『세운상가와 그 이웃들』, 서울역사박물관.
- 김은실, 2004, “지구화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 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푸른사상.
- 김희연, 2004, “한국의 레즈비언 놀이문화 연구: 클럽(Club)과 바(Bar)에서 드러나는 소수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박성태 · 정성규, 1993,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육백년-어제 · 오늘 · 내일』, 한국일보사.
-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이태원, 공간과 삶』.
- 송도영, 2007, “종교와 음식을 통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네트워킹: 이태원 지역 이슬람 음식점들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3(1): 98~136,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_____, 2011,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 서울 이태원의 사례”, 『담론 201』, 14: 5~39, 한국사회역사학회.
- 양영란(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Henri Lefebvre, 2000, *The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ECONOMIA).
- 이서진, 2006,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논문.
- _____, 2007,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49: 23~44.
- 조미나, 2001, “사이버 공간에서 동성애자 집단의 소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조성배,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종일, 2003, “이태원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제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한유석, 2010, “이태원 사람들”, 『이태원, 공간과 삶』: 234~435, 서울역사박물관.
- Castells, M., 1983, *The City and the Grassroots: A Cross-cultural Theory of Urban Social Movem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ist, Thomas, 1990, “Developing Transnational Social Spaces: The Turkish-German Example”, in Ludger Pries(ed.),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36~72, Aldershot and Brookfield: Ashgate.
- Munt, Sally R., 1998, *Heroic Desire: Lesbian and Cultural Space*, New York University Press.
- Sennett, Richard, 1996, *Flesh and Stone: The Body and the City in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Norton & Company.
- Weghitman, B., 1980, “Gay Bars as Private Places”, *Landscape*, 24: 9~17.
- Tuan, Yi-Fu, 2001, *Space and Pl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2년 8월 16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12년 10월 4일
 2 차 심 사 완 료 일 : 2012년 11월 27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12년 12월 26일